

# 불을 처음 발견한 모습을 재현하는 이족(彝族)의 제화절(祭火節) 축제

권태호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인**류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불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했을까? 불은 인류의 문화사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음식을 비로소 익혀먹을 수 있게 되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인류가 전혀 생존할 수 없었던 지역 및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다. 때문에 세계에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신화들에서도 보면 불의 발견은 인류 문화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창조신화의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에서 불을 훔

쳐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고, 우리의 창세신화에서도 창조신인 미륵이 물과 불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 들어있다. 이런 신화와 더불어 불을 숭배하는 제의도 각 민족별로 다양한 모습을 지닌 채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 보고는 지금까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불을 처음 발견할 당시의 원초적인 모습을 제의를 통해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 있어 흥미롭다. 바로 중국 운남(雲南)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이족(彝族)이 바로 그들이다. 이족의 제화절 축제는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던 당시의 모습 및 불에 대한 숭배의식을 원초적인 제의 형태로 고스란

히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축제의식이다.

중국 운남(雲南)은 한족을 포함해 26개 민족이 모여 사는 여러 민족의 집산촌이다. 각 민족들은 제 나름의 생활터전을 기반으로 생활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선조대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던 전통적인 제의나 민속 및 생활상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도심을 벗어나 지방으로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그들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모습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이족은 주로 산을 기반으로 생활을 해온 민족이다. 때문에 그들은 산신(山神)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제의가 크게 발달되어 있고, 고산지대의 생활에서 필수조건인 불을 숭배하는 신앙도 아주 성대하게 치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산신 및 불에 대한 제의는 이족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사의식 중에서도 특히 제화절(祭火節) 축제는 불을 숭상하는 이족의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운남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족들에게 불에 대한 제사의식은 각 지파(支派)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운남의 미륵현(彌勒縣) 서일진(西一鎮) 홍만(紅萬)마을의 제화절 축제는 불에 대한 전통적인 제의 모습을 현재까지도 잘 간직하면서 전승되는 제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은 이족 중 특히 아시지파[阿細支派]가 모여 사는 곳으로, 매년 음력 2월 3일에 그들의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아우'라는 불신을 섬기는 제화절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거행한다.

제화절 축제의 본질은 인간이 최초로 불을 발견한 과정 및 불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축제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화절의 축제의식의 구성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텐데, 전반적으로는 불에 대한 제의 및 마을사람들이 원초적인 모습을 재현하면서 불을 얻은 것에 대한 환희



〈사진 1〉 제화절 전날 미즈림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고산지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이족에게는 산신이 최고의 신으로 섬겨진다.



〈사진 2〉 마을 입구에서 원시인의 복장을 한 채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사진 3〉 마을의 신목앞에서 불 제사를 올린 후 원시인의 복장을 한 채 통나무에 처음 불을 만든 모습을 재연하는 비무어와 마을 청년들



〈사진 4〉 불 축제에서 통나무를 마찰시켜 새로운 불을 만드는 의식을 거행한 후, 각 가정마다 불씨를 나눠준다.

를 춤추고 노래하면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불로 마을의 재앙을 쫓아내는 것 등이 핵심이다.

제화절의 첫 번째 단계는 제화절이 있기 전날에 치러지는 산신제이다. 이족들은 산을 기반으로 생활하였기에 산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산신을 마을 수호신으로 섬긴다. 때문에 이족들은 흔히 산신제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화절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불 축제가 있기 전날 미즈림[密枝林]이라고 하는 산신이 기거하고 있다고 여기는 신성한 숲에서 마을에 불 축제가 있음을 고하는 산신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집집마다 조금씩 돈을 내어 수탉지를 한 마리 잡아 산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신목(神木)에 술과 밥 등의 제물(祭物)과 돼지머리와 앞다리, 꼬리 등을 바치면서, 비무어[備摩]라고 불리는 사제자가 마을에 불 축제가 있음을 고하면서 그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고, 마을을 평안하

게 해달라는 의미의 축원을 한다. 축원 후에는 새로 잡은 돼지의 견갑골(肩胛骨) 부위를 잘라 지난 해 신목에 매어 두었던 것과 바꿔 매달고, 나머지 부위의 돼지고기는 마을의 각 가정마다 일정하게 분배해준다. 이족의 산신제 때는 일반적으로 수탉지를 산신묘 앞에서 희생시켜 산신께 바치고, 각 가정마다 산신묘 앞에서 수탉을 희생시키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원초적인 수렵문화가 그들의 제의에서는 아직 잔존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격적인 불 축제는 음력 2월 3일 오후 세 시경부터 시작되는데, 제의 및 춤과 놀이 등 축제의 전반이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을 처음 발견할 당시의 모습을 원시적인 형태 그대로 모방하고, 불을 얻은데 대한 놀라움과 환희를 제사의식 및 춤 동작, 소리 외침 등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신화와 제의의 연관성은 일찍부터 논의가 되어왔는





〈사진 5〉 화신(火神)을 모시고 기 행렬을 이루면서 마을에 나있는 사방의 길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재앙을 몰아낸다.



〈사진 6〉 '수인씨(燧人氏)'라고 불리는 화신(火神)의 형상을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 메고서 마을 곳곳을 다니며 재앙을 물리친다.

데, 제화절의 제의과정은 신화가 제의에 잘 반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족의 아시지파 창세신화에 보면 불을 처음 발견한 존재는 이족어(彝族語)로 '아우'라는 인물로, 제화절에는 바로 이 '아우'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는 것이다.

나뭇잎 등으로 원시인의 복장을 꾸민 비무어들과 마을사람들이 통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뒤이어 "아우~"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발견한데 대한 기쁨을 춤을 추면서 표현한다. 그런데 이 때의 춤이 아주 흥미롭다.

한 쪽의 발을 높이 들었다가 발을 바꿔 다른 발을 높이 드는 형태를 반복하는데, 이것은 곧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불을 다룰 줄 몰라 불이 발등에 떨어져 뜨거워하는 모습을 춤동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곧 제의에서 신화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불은 인류의 문화에 있어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첫째는 인류가 비로소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둘째는 자연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난방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족처럼 고산지대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민족에게는 특히 불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불은 고산지대의 혹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이면서, 화전을 통해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했다. 또한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족들의 생활과 문화에서 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불에 대한 소중함이 불의 숭배 및 제의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고, 아울러 각 가정에서는 이런 불 제사를 통해서 매년 새로 만들게 되는 불씨를 얻어가는 의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을축제에서는 불을 얻은데 대한 기쁨 및 환

“  
불은 인간에게  
반드시 이로움만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다.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잘못 다루면 재앙의 근원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불은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 곧 불이다.  
”

〈사진 7〉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을 얻어 기쁨을 춤을 추면서 표현하는 모습.



회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춤과 노래를 통해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의 원시인 모습으로 꾸미고는 나무와 진흙으로 사용해 사람 모양으로 만든 중국신화에서 불을 가져온 '수인씨(燧人氏)'라는 화신(火神) 신체(神體) 주위에서 춤추며, 말 형상의 모형을 만들어 타고는 기뻐 날뛰는 모습을 연출하고, 다 함께 긴 행렬을 이루며 춤추면서 마을의 축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런데 불은 인간에게 반드시 이로움만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다.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잘못 다루면 재앙의 근원이 되기 십상이다. 또

한 불은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 곧 불이다. 그렇기에 이런 불 축제에서는 화재와 같은 불이 가져다주는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원 의식도 찾아볼 수 있으며, 아울러 불을 통해 마을에 있는 악귀나 사악한 기운 및 질병 등을 쫓는 기능 또한 수반된다. 그런 까닭에 화신의 형상을 모시고 춤을 추면서 긴 행렬을 이루어 마을에 나오는 모든 길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있는 재앙을 몰아내게 된다. 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새로이 불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금 재현하고는, 그 불로 각기 횃불을 만들어 들고 '아우'



가 불을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춤을 추면서 불을 얻은 환희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때 마을 남성들은 새로 피워놓은 불을 타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불을 얻은데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몸에 붙어있는 재앙이나 질병들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불의 정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의식이 끝날 무렵이면 해는 어느덧 서산에 걸리고 어둠이 가볍게 내려앉는다. 이제 불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시간이 된 것이다.

중국 운남은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유산이 잘 남아있

는 세계 민속문화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각 민족마다 특이한 제의 및 신화, 민속, 복식, 공예 등의 민속 및 생활상이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다.

하지만 현대의 물질문명이 빠르게 이 곳에 침투되고 사람들이 옛 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전통의 많은 부분이 오히려 변질되거나 훼손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점차 그 본래의 기능이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거나 공연예술화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민속문화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된다. ☞